

3~6세 아동의 대립어 습득 및 부정어 처리 발달

김 형 재
경성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Negation and Opposites Acquisition from 3 to 6 Year-old Children

Kim, Hyoung Jai
Dept. of Living Culture,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pposites acquisition and tendency of processing negations about directional oppositionality from 3- to 6-old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0 children from a daycare center and 2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Korea.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oduce opposites for common terms related to colors, directions, and dimension adjectives. In Experiment 2, they were asked to make pictures corresponding to statements with negations(e. g. *The arrow is NOT pointing up.*). Summarizing the overall results, first, children over 5 considered 'blue' and 'red' as opposites colors in the case of not well-known color opposites. If there exists an opposite color, color opposites have been acquired from 6 year-olds, the directional opposites started from 3 year-olds, and the opposites of dimension adjectives did from 5 year-olds. Second, preferring the antipodal color opposites started from 6 and preferring the antipodal direction did from 3. Consequently, 3-to 6 year-old children acquired opposites at different age and opposites dimension. Also the opposites dimension have an effect on processing negation of young children.

Key words: opposites acquisition, processing negation, opposites dimension, antipodal prefer

I. 서론

대립(opposites)이란 자연적이고 심리적인 의미 영역으로 어휘가 의미적으로 서로 맞서는 것을 뜻한다(탁미정 1994). 즉 '크다'의 대립어는 '작다'와 같지 않고 정반대를 나타내는 '작다'가 된

다. 대립어의 차원은 상호의존 정도에 따라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나누어지고, 상호의존 관계가 전혀 없거나 약한 것은 중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시 중간자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즉 대립어는 반의적(antonymous) 대립어, 상보(converse) 대립어, 방향(directional)

대립어로 나눌 수 있다(Lyons 1977).

반의적 대립어는 논리학에서 대립 개념을 분량이나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두 동위 개념으로 중간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립어를 의미한다. 반의적 대립어 안에는 ‘길다 : 짧다’, ‘높다 : 낮다’, ‘굵다 : 가늘다’와 같은 차원형용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반의적 대립어는 한 쪽의 단언은 다른 쪽의 부정을 의미하나 한 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단언을 의미하지 않는다(Lyons 1977). 예로, ‘Bill이 키가 크다’면, 이것은 ‘Bill이 키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Tom이 작지 않다’는 반드시 ‘Tom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보 대립어는 두 개념이 내포 상 상통하는 점이 있고 상호 의존해서 규정해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대립어이다. 즉 대립되는 개념 간에 의미가 서로 대립되면서도 상호 의존도가 크다. 예로, ‘아내 : 남편’, ‘아버지 : 아들’과 같은 관계이다. 방향 대립어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특정 위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의 의미를 가진다(Lyons 1977). 즉 ‘위’의 대립어는 특정 위치 ‘위’의 반대방향인 ‘아래’가 된다. 예로, ‘위쪽 : 아래쪽 : 오른쪽 : 왼쪽’, ‘안 : 밖’과 같은 관계이다. 방향 대립어를 더 세분화된 차원으로 보면 수직적(orthogonal) 대립어와 정반대(antipodal) 대립어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대립어는 ‘위쪽 : 오른쪽’이나 ‘위쪽 : 왼쪽’의 관계와 같이 위치가 직각을 이루는 반면 정반대 대립어는 ‘위쪽 : 아래쪽’의 관계와 같이 정반대 위치를 의미한다. 방향은 또한 색 용어로 확장될 수 있다(Lyons 1977). ‘검정색 : 흰색’과 같은 색은 ‘위쪽 : 아래쪽’과 같이 정반대 대립어와 일치하는 3차원 공간상에 배열될 때, 유사한 위치적 자질을 보여준다(Berlin & Kay 1969; Lyons 1977). 이러한 대립어의 유형 및 차원에 따라 아동의 대립어 습득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의 대립어 습득연구 중 차원형용사는 표현에서 3세에 가장 먼저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크다 : 작다’를 습득하고, 4세 후에서 5세 전에 ‘많다’를 6세에 ‘적다’를 습득하며 ‘높다 : 낮다’, ‘두껍다 : 얇다’는 6세가 되어서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장은숙 2004). 이러한 차원형용사의

습득 차이는 의미적 인지적으로 단순한 쪽을 복잡한 쪽보다 먼저 습득하게 된다는 ‘의미적 복잡성’ 차이로 설명된다(Clark 1972). 방향 대립어의 습득순서는 ‘앞 : 뒤’, ‘안 : 밖’, ‘위 : 아래’, ‘오른쪽 : 왼쪽’의 순이다(임지룡 1989). 즉 방향 대립어는 3, 4세에 혼란을 겪다가 6세에 완성단계에 도달하는데, 특히 ‘오른쪽 : 왼쪽’은 5세도 파악하지 못한 아동이 많으며 5세 후에 습득된다(임지룡 1989). 장은숙(2004)은 방향 대립어를 표현하는 것이 ‘위’는 3세, ‘앞 : 뒤’는 4세, ‘안 : 밖’은 5세, 마지막으로 ‘아래’는 6세 후에 나타나고, ‘위 : 아래’의 경우 ‘위’와 ‘아래’가 극성 간 습득 연령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립어 유형에 따라 대립어 습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 대립어, 방향 대립어 및 차원형용사 대립어의 습득시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부정은 추론에서 기본적인 개념이고, 부정 없이 논리적 체계를 생각할 수 없다(Altman 1967; Harrison 1972; Wilden 1972). 논리적 추론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경험적 편견(empirical bias)’이나 현실세계의 진실상황에서 논리적 의미를 분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Braine & Rumain 1983; Johnson-Laird 1983; Leevers & Harris 2000). 예로, ‘만약 ‘개가 나무로 만들어진’다면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술에서 전제조건, ‘개가 나무로 만들어진’에 대해 ‘태양이 내일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결론내리지 않는다. 이는 태양은 내일 반드시 떠오르고 개는 나무로 만들지 않는다는 현실세계의 기대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결론을 내리려면 논리적 연결어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논리적 체계, 즉 논리의 확대가 필요하다(Johnson-Laird 1983).

부정어를 처리할 때 내포된 의미의 해석은 의미적 측면과 화용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의미적으로 부정어를 처리할 때는 약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약한 부정(weak negation)’은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간자를 활용하므로 모든 범위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예로, 약한 부정에서 ‘뜨겁지

않은 커피'는 따뜻하거나(warm), 미지근하거나 (tepid나 lukewarm), 차가운(cold) 것이 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부정어를 처리할 때는 경험에서 나온 학습되고 평가된 조건들의 집합이 해당된다(Lyons 1977). 즉 강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강한 부정 (strong negation)'은 극단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제거된 중간상태를 배제하는 규칙을 따른다. 예로, 강한 부정에서 '뜨겁지 않다'는 단지 '차가운 상태'만을 의미한다. 부정에 대해 성인은 내포적이고 약한 해석보다는 강한 해석을 좋아한다 (Brewer & Lichtenstein 1975; Gross et al. 1989; Rychlak & Barnard 1996). '메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슬프다'나 '화가 난다'를 선택하게 하면 성인은 대부분 자신이 선호하는 '슬프다'를 선택한다(Rychlak & Barnard 1996). 하지만 아동도 성인과 유사한 해석을 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대상구조를 활용한 아동의 부정어 처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harpe et al. 1996; Sharpe et al. 1997). Sharpe 등(1996)은 전체 대상에 정반대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 4세의 아동에게 George는 '저녁(식사)이 좋았니?'라고 묻자 그들은 'Yes'나 'No'로 답하고 그 이유를 George가 '감자는 싫지만 당근은 좋다'라고 하였다. 즉 3세 아동은 대상이 부분과 전체로 구성되고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 되는 속성이 전체 대상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3세 아동이 대상구조를 활용하여 부정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harpe 등(1997)은 반의적 대립어가 포함된 문장을 아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장난감 코끼리를 보여주며 아동에게 '내가 친구한테 코끼리가 큰지를 묻자 친구는 'Yes'나 'No'로 대답했다'와 같이 명백한 모순이 있는 상황을 물어본 결과 그들은 대상구조를 활용하여 명백한 모순을 처리하였다. Sharpe 등(1999)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상을 부분으로 분석한 대상구조, 즉 중간을 배제하지 않는(unexcluded middle) 경계선상의 경우(borderline case)에 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세 아동도 부분에서 전체까지 속성의 고유한 성질(inheritance)을 추론하는 정교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Morris(2003)는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차원이 있는 방향 대립어가 주어질 때 부정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위쪽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아동은 수직적 답, '오른쪽'이나 '왼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답, '아래쪽'을 선호한다고 한다. 즉 4, 5세 아동은 부정어를 처리하기 위해 대립어라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주 구조가 존재할 때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대립어는 유용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립어 습득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Morris(2003)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4세와 5세는 발달적 차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 5세 모두 정확한 기준 없이 성인과 유사한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보다 더 어린 아동인 3세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Morris(2003)는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어와 언어 구조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그들과 부정어 처리과정이 같은지 다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립어의 한국어 연구로 척도 대립어를 중심으로 한 아동의 단어 의미습득 연구(이유미 1998), 전반적인 대립어 의미습득 연구(임지룡 1989), 그리고 척도 반의어와 방향 대립어를 중심으로 한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대립어 의미습득 연구(장은숙 2004)가 이루어졌지만 차원이 있는 방향 대립어가 있을 시 부정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립어 유형 및 차원에 따른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대립어 습득시기를 알아보고 차원이 있는 대립어의 부정어 처리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3~6세 아동의 대립어 습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3~6세 아동의 색 대립어 습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3~6세 아동의 방향 대립어 습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3~6세 아동의 차원 대립어 습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6세 아동의 부정어 처리 시 정 반대 선호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3~6세 아동의 부정어 처리 시 색의 정 반대 선호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3~6세 아동의 부정어 처리 시 방향의 정 반대 선호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부산광역시 두 곳의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하여 3~6세 아동 중 담당교사에 의해 인지적 결함이 없고 언어발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된 아동으로 본 검사 실시 전 예비문항을 실시하여 검사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또한 검사 시 3세 6개월 미만 아동은 방향 지시어에 대한 개념 및 대립어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각 연령별 20명씩 총 80명과 부산시 한 대학을 임의선정한 후 무작위로 추출한 대학생 20명이었다.

각 연령별 및 성별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age and sex of subjects

Age	N	Gender		Age		
		male	female	min.	max.	mean SD
3	20	9	11	3.08	3.11	3.10 .01
4	20	11	9	4.02	4.11	4.07 .03
5	20	9	11	5.01	5.11	5.06 .04
6	20	10	10	6.00	6.08	6.04 .02
Adults	20	10	10	18.09	26.06	21.35 2.20
Total	100	49	51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Morris(2003)의 도구를 참고하여 언어발달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연구자가 한국어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고, 각 연령별 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질문문

장의 표현과 해당용어를 수정하였다. 대립어 습득과제의 단어 선정은 Clark(1972)의 척도 반의어 실험을 중심으로 권경안(1980)이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연구에서 연령별 어휘습득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의 어휘 검사지와 문교부(1956)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 조사의 척도 반의어 사용빈도수를 참고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립어가 있는 반면, 대립어로 알려지지 않은 ‘파란색’과 ‘빨간색’은 자극용어로 사용되었다. 대립어 습득 과제의 도구는 반의적 대립어의 차원형용사 대립어 및 방향 대립어와 같은 차원이 있는 대립어 쌍용어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흰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 4개,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을 향하는 검정색 화살표 4개, ‘밝다 : 어둡다’, ‘길다 : 짧다’ 등의 형용사를 나타내는 사진 2쌍씩 12장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어 처리 과제의 도구는 차원이 있는 대립어가 4세에 나타나고(Dale & Fenson 1996) 이것은 대상구조와 중첩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Sharpe et al. 1999) 방향 대립어로 제한하였다. 방향은 검정색 화살표 스티커, 색은 흰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 스티커 4개를 각 섹션마다 아동에게 주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6년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검사시간은 각 아동 당 대략 30~40분 정도가 걸렸다. 어린이집 내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검사자가 개별로 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순서는 1) 대립어 습득 과제와 2) 부정어 처리 과제의 맞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차로 섞어 대상아동의 받은 1) 실시 후 2)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아동 받은 반대로 실시하였다. 대립어 습득 과제에서 검사자는 아동에게 “‘작다’의 반대는 ‘크다’이지? 이렇게 반대말은 그 단어와 같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야.”라고 대립어의 의미를 설명한 후 4개의 예비문항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 시 검사자는 아동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사진 단어 카드를 책상 앞에 놓고 해당 사진의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정확하게 말한 후 사진에

해당되는 단어의 ‘반대말’을 산출하게 하였다. 용어는 반복할 수 있으며 아동이 그 용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대립어를 질문하였다. 부정어 처리 과제에서 검사자는 아동에게 ‘스티커 놀이’를 할 거라고 말하였고, 과제수행을 돕는 2개 예비문항에서 아동은 검사자가 읽는 진술에 따라 스티커를 붙였다. 본 과제는 부정표현 8개 문항으로 검사자가 아동에게 진술을 읽어주면 아동은 그 진술에 해당되는 그림을 완성하였다. 잘 알려진 대립어를 가진 6개 진술과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2개 진술로 구성되었다. 각 진술은 색 및 방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 섹션별로 3개 정답과 1개 오답의 4가지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2개 수직적 의견과 1개 정반대 의견을 나타낸다. 아동검사 후 아동의 부정어 처리 경향을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검사도구 및 연구절차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대립어 습득 과제의 채점은 정확한 대립어를 산출한 경우에만 1점, 그 외는 0점 처리하였고, 부정어 처리 과제의 채점은 아동이 완성한 그림 채점 시 색 대립어는 ‘빨간색’과 ‘파란색’ 2개 문항은 제외하고 2개 문항만 채점하였고 방향 대립어는 4개 모두 채점하였는데, 정반대 대립어만 1점, 그 외 수직적 대립어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성인도 아동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검사 시 반응의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대립어 습득 및 부정어 처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Pearson X^2), 대립어 습득 및 부정어 처리의 연령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Scheffe 사후분석을 하였다. 검사 시 반응 신뢰도 Cronbach’s α 는 ‘흰색 : 검정색’과 같은 색 대립어 4문항 .74, ‘위쪽 : 아래쪽’과 같은 방향 대립어 4문항 .80, ‘길다 : 짧다’와 같은 차원형용사 대립어 12문항 .89, 전체 대립어 20문항 .89, ‘흰색이 아닌 것’과 같은 색 부정어 4문항 .63, ‘위쪽이 아닌 것’과 같은 방향 부정어 4문항 .72, 전체 부정어 8문항 .65,

전체 28문항이 .87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3~6세 아동의 색 대립어 습득

연령에 따른 색 대립어 습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differences of color opposites acquisition according to age

Age	M(SD)		Total color
	‘White’ opposites : black	‘Black’ opposites : white	
Adults	1.00(.00)	1.00(.00)	2.00(.00)
3	.25(.44)	.25(.44)	.50(.83)
4	.50(.51)	.25(.44)	.75(.79)
5	.55(.50)	.45(.51)	1.00(.86)
6	.75(.44)	.75(.44)	1.50(.83)
χ^2	10.16*	13.71**	-

N : 100(each age : 20), df = 3, * p<.05, ** p<.01
 each section’s maximum : 1 scale
 total color’s maximum : 2 scales

연령에 따라 색 대립어 습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Table 2와 같이 색 대립어의 습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습득비율이 증가한

Table 3. The comparison among ages of color opposites acquisition

	Age	5	4	3
‘White’ opposites	6	.20	.25	.50*
	5		.05	.30
	4			.25
‘Black’ opposites	6	.30	.50*	.50*
	5		.20	.20
	4			.00
Total	6	.20	.75*	1.00**
	5		.25	.50
	4			.25

*p<.05, **p<.01

다. 즉 ‘흰색’ 대립어는 5세 후, ‘검정색’ 대립어는 6세 후, 색 대립어 전체는 6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는다. 따라서 색 대립어는 5, 6세쯤에 습득된다. 교차분석(Pearson X^2) 결과 Table 2와 같이 색 대립어 습득은 ‘흰색’, ‘검정색’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색 대립어의 정답률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오답률이 높아진다.

색 대립어 습득이 어떤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로 사후분석의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색 대립어 습득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색 대립어 습득은 3세와 6세간, 4세와 6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색 대립어는 6세 후에 습득된다.

2. 3~6세 아동의 방향 대립어 습득

연령에 따른 방향 대립어 습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differences of directional opposites acquisition according to age

Age	M(SD)				
	‘Up’ opposites : down	‘Down’ opposites : up	‘Right’ opposites : left	‘Left’ opposites : right	Total direct
Adults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3	.80(.41)	.80(.41)	.80(.41)	.70(.47)	3.10(1.25)
4	.85(.37)	.90(.31)	.85(.37)	.85(.37)	3.45(1.23)
5	1.00(.00)	.95(.22)	1.00(.00)	.90(.31)	3.85(.37)
6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χ^2	7.96*	5.48	7.98*	7.91*	-

N : 100(each age : 20), df = 3, * p<.05
 each section’s maximum : 1 scale
 total direct maximum : 4 scales

연령에 따라 방향 대립어 습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Table 4와 같이 방향 대립어 습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습득비율이 증가한다. 즉 ‘위쪽’ 대립어, ‘아래쪽’ 대립어, ‘오른쪽’ 대립어, ‘왼쪽’ 대립어 간에 습득 차이는 거의 없

고, 방향 대립어 모두 3세조차도 우연수준(50%)을 훨씬 넘으며 5세에 거의 100% 습득을 보인다. 따라서 방향 대립어는 색 대립어보다 훨씬 이전에 습득됨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Pearson X^2) 결과 Table 4와 같이 ‘아래쪽’ 대립어를 제외하고 ‘위쪽’ 대립어, ‘오른쪽’ 대립어, ‘왼쪽’ 대립어의 습득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방향 대립어의 정답률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오답률이 높아진다.

방향 대립어 습득이 어떤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comparison among ages of directional opposites acquisition

	Age	5	4	3
‘up’ opposites	6	.00	.15	.20
	5		.15	.20
	4			.05
‘left’ opposites	6	.10	.15	.30
	5		.05	.20
	4			.15
‘right’ opposites	6	.00	.15	.20
	5		.15	.20
	4			.05
total	6	.15	.55	.90*
	5		.40	.75
	4			.35

*p<.05, **p<.01

연령에 따른 방향 대립어 습득 차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전체 방향 대립어는 3세와 6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연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아동은 이른 3세에 이미 습득된다.

3. 3~6세 아동의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

연령에 따른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원형용사 대립어의 습득을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이 ‘작다’ 대립어와 ‘크다’ 대립어는 3세에 이미 습득되고, ‘어둡다’ 대립어는 5세 후, ‘밝다’ 대립어는 6세가 되어야 우연수준(50%)을 넘고 ‘밝다’가 ‘어둡다’보다 습득시기가 빠르며 1년의 시차를 보인다. ‘낮다’ 대립어와 ‘높다’ 대립어는 6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고, ‘얇다’ 대립어는 6세 후, ‘두껍다’ 대립어는 5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으며, ‘얇다’가 ‘두껍다’보다 습득시기가 빠르며 1년의 시차를 보인다. ‘짧다’ 대립어는 5세 후, ‘길다’ 대립어는 6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고 ‘길다’가 ‘짧다’보다 습득시기가 빠르며 1년의 시차를 보인다. ‘적다’ 대립어는 5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지만, ‘많다’의 대립어는 6세가 되어도 우연수준(50%)을 넘지 못하고 ‘많다’가 ‘적다’보다 습득시기가 빠르며 2년이 넘는 시차를 보인다.

연령에 따라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이 차원형용사 대립어, ‘밝다’ 대립어, ‘어둡다’ 대립어, ‘길

다’ 대립어, ‘짧다’ 대립어, ‘낮다’ 대립어, ‘높다’ 대립어, ‘적다’ 대립어, ‘두껍다’ 대립어, ‘얇다’ 대립어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차원형용사 대립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오답률이 높아진다.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이 어떤 연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 차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은 3, 4, 5세와 6세간에 차이가 있고, 3세와 5세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6세 때 완전히 습득됨을 알 수 있다.

4. 3~6세 아동의 색 부정어 처리 경향

연령에 따른 색의 부정어 처리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연령에 따른 색의 부정어 처리 경향을 알아본 결과 Table 8과 같이 잘 알려진 대립색, ‘흰색’이 아닌 색은 3, 4세에 ‘빨간색’이 가장 높다가 4, 5

Table 6. The differences of dimension adjectives opposites acquisition according to age

Age	M(SD)												Total
	‘Small’ opposites	‘Big’ opposites	‘Dark’ opposites	‘Light’ opposites	‘Low’ opposites	‘High’ opposites	‘Thin’ opposites	‘Thick’ opposites	‘Short’ opposites	‘Long’ opposites	‘Few’ opposites	‘Many’ opposites	
	big	small	light	dark	high	low	thick	thin	long	short	many	few	
Adults	1.00 (.00)	.95 (.22)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90 (.31)	1.00 (.00)	11.85 (.37)
3	1.00 (.00)	.90 (.31)	.10 (.31)	.15 (.37)	.10 (.31)	.25 (.44)	.10 (.31)	.10 (.31)	.20 (.41)	.15 (.37)	.20 (.41)	.00 (.00)	3.25 (2.36)
4	1.00 (.00)	.95 (.22)	.30 (.47)	.20 (.41)	.20 (.41)	.25 (.44)	.25 (.44)	.30 (.47)	.45 (.51)	.25 (.44)	.45 (.51)	.20 (.41)	4.80 (2.17)
5	1.00 (.00)	1.00 (.00)	.65 (.49)	.40 (.50)	.20 (.41)	.35 (.49)	.25 (.44)	.70 (.47)	.60 (.50)	.30 (.47)	.60 (.50)	.25 (.44)	6.30 (2.45)
6	1.00 (.00)	1.00 (.00)	.90 (.31)	.90 (.31)	.75 (.44)	.60 (.50)	.55 (.51)	.90 (.31)	.80 (.41)	.70 (.47)	1.00 (.00)	.40 (.50)	9.70 (2.06)
χ^2	-	3.81	30.57***	29.04***	24.38***	7.09	10.44*	32***	15.36**	15.39**	27.38***	9.79*	-

N : 100(each age : 20), df = 3, * p<.05, ** p<.01 ***P<.001

each section maximum : 1 scale, total dimension adjective opposites maximum : 12 scales

Table 7. The comparison among ages of dimension adjectives opposites acquisition

Variables	Age			
	5	4	3	
'Dark' opposites	6	.25	.60***	.80***
	5		.35	.55**
	4			.20
'Light' opposites	6	.50**	.70***	.75***
	5		.20	.25
	4			.05
'Short' opposites	6	.20	.35	.60**
	5		.15	.40
	4			.25
'Long' opposites	6	.40*	.45*	.55**
	5		.05	.15
	4			.10
'Low' opposites	6	.55**	.55**	.65***
	5		.00	.10
	4			.10
'Few' opposites	6	.40*	.55**	.80***
	5		.15	.40*
	4			.25
'Many' opposites	6	.15	.20	.40*
	5		.05	.25
	4			.20
'Thin' opposites	6	.30	.30	.45*
	5		.00	.15
	4			.15
'Thick' opposites	6	.20	.60***	.80***
	5		.40*	.60***
	4			.20
Total	6	3.40***	4.90***	6.45***
	5		1.50	3.05**
	4			1.55

*p<.05, **p<.01, ***p<.001

세 후에 '검정색'이 가장 높았고 6세에 우연수준(50%)을 넘어 성인 수준을 보이며, '검정색'이 아닌 색은 3세에 '흰색'과 '파란색'이 가장 높다가 4세에 '흰색'이 가장 높고 6세에 우연수준(50%)을 넘어 5, 6세에 성인 수준을 보인다.

Table 8. The responds of processing negation about color according to age (%)

Variables	Age					
	3	4	5	6	Adult	
'White' negation	white	0 (0)	0 (0)	0 (0)	0 (0)	0 (0)
	black	6 (30)	7 (35)	9 (45)	13 (65)	12 (60)
	blue	4 (20)	6 (30)	4 (20)	4 (20)	4 (20)
'Black' negation	red	10 (50)	7 (35)	7 (35)	3 (15)	4 (20)
	white	7 (35)	8 (40)	9 (45)	14 (70)	10 (50)
	black	0 (0)	0 (0)	0 (0)	0 (0)	0 (0)
'Blue' negation	blue	7 (35)	5 (25)	8 (40)	2 (10)	3 (15)
	red	6 (30)	7 (35)	3 (15)	4 (20)	7 (35)
	white	7 (35)	2 (10)	3 (15)	4 (20)	5 (25)
'Red' negation	black	7 (35)	8 (40)	8 (40)	3 (15)	6 (30)
	blue	0 (0)	0 (0)	0 (0)	0 (0)	0 (0)
	red	6 (30)	10 (50)	9 (45)	13 (65)	9 (45)
'White' negation	white	6 (30)	5 (25)	6 (30)	2 (10)	6 (30)
	black	5 (25)	2 (10)	6 (30)	4 (20)	3 (15)
	blue	9 (45)	13 (65)	7 (35)	14 (70)	11 (55)
'Red' negation	red	0 (0)	0 (0)	1 (5)	0 (0)	0 (0)

N : 100(each age : 20)

'빨간색'이나 '파란색'과 같이 잘 알려진 대립 색이 없는 색의 부정어 처리에서 '파란색'이 아닌 색은 3세에 '흰색', '검정색'이 가장 높다가 4세에 '빨간색'이 가장 높고 4세에서 6세까지 성인 수준을 보이며, '빨간색'이 아닌 색은 3세에서 6세까지 모두 '파란색'이 가장 높고 성인도 그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연령에 따른 색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Pearson X²)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령에 따른 색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를 알아본 결과 Table 9와 같이 정반대 색 대립어의 선호는 6세 후에 우연수준(50%)을 넘고, 성인과 비교해 볼 때, '흰색'이 아닌 색을 검정색으로 처리하는 것은 6세경에 성인 수준에 이르고 '검정색'이 아닌 색을 흰색으로 처리하는 것은 6세에 우연수준(50%)을 넘는다. 6세 아동의 정반대 색 대립어의 선호는 성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대립어가

습득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기인 6세에 정반대 색 대립어의 선호가 가장 높다.

Table 9. The antipodal preference's differences of processing negation about color according to age

Age	M(SD)		
	'White' negation : black	'Black' negation : white	Total color
Adults	.60(.50)	.50(.51)	1.10(.85)
3	.30(.47)	.35(.40)	.65(.59)
4	.35(.49)	.40(.50)	.75(.85)
5	.45(.51)	.45(.51)	.90(.79)
6	.65(.49)	.70(.47)	1.35(.81)
χ^2	5.84	5.82	-

N : 100(each age : 20), df = 3
 each section maximum : 1 scale
 total antipodal color maximum : 2 scales

연령에 따라 색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Table 9와 같이 '흰색'이 아닌 것, '검정색'이 아닌 것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3~6세 아동의 방향 부정어 처리 경향

연령에 따른 방향의 부정어 처리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연령에 따른 방향의 부정어 처리 경향을 알아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위쪽'이 아닌 것은 3세부터 이미 '아래쪽'이 가장 높고 6세에 대부분 '아래쪽'으로 나타나며 '아래쪽'이 아닌 것은 3세부터 이미 '위쪽'이 가장 높고 6세에 모두 '위쪽'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이 아닌 것은 3세에 이미 '왼쪽'이 가장 높고 6세에 대부분 '왼쪽'으로 나타나며 '왼쪽'이 아닌 것은 3세에 이미 '오른쪽'이 가장 높고 6세에 대부분 '오른쪽'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방향 부정어의 정반대 대립어의 선호는 3세조차도 우연수준(50%)을 넘고 5, 6세에 성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색의 정반대 색 대립어의 선호보다 훨씬 더 높다.

Table 10. The responds of processing negation about direction according to age

Variables	Age					
	3	4	5	6	Adult	
'Up' negation	up 0 (0)	0 (0)	0 (0)	0 (0)	0 (0)	
	down 13 (65)	16 (80)	16 (80)	17 (85)	18 (90)	
'Right' negation	right 1 (5)	2 (10)	2 (10)	1 (5)	1 (5)	
	left 6 (30)	2 (10)	2 (10)	2 (10)	1 (5)	
'Down' negation	up 12 (60)	13 (65)	15 (75)	20(100)	16 (80)	
	down 0 (0)	0 (0)	0 (0)	0 (0)	0 (0)	
'Right' negation	right 5 (25)	5 (25)	2 (10)	0 (0)	2 (10)	
	left 3 (15)	2 (10)	3 (15)	0 (0)	2 (10)	
'Left' negation	up 6 (30)	3 (15)	3 (15)	2 (10)	1 (5)	
	down 2 (10)	2 (10)	2 (10)	1 (5)	2 (10)	
'Right' negation	right 0 (0)	0 (0)	0 (0)	0 (0)	0 (0)	
	left 12 (60)	15 (75)	15 (75)	17 (85)	17 (85)	
'Left' negation	up 2 (10)	2 (10)	2 (10)	0 (0)	1 (5)	
	down 4 (20)	4 (20)	3 (15)	1 (5)	2 (10)	
'Right' negation	right 14 (70)	14 (70)	15 (75)	18 (90)	16 (80)	
	left 0 (0)	0 (0)	0 (0)	1 (5)	1 (5)	

N : 100(each age : 20) (%)

연령에 따른 방향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Pearson X²)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연령에 따른 방향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를 알아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정반대 방

Table 11. The antipodal preference's differences of processing negation about direction according to age

Age	M(SD)				
	'Down' negation : up	'Up' negation : down	'Left' negation : right	'Right' negation : left	Total direct
Adults	.80(.41)	.90(.31)	.80(.41)	.85(.37)	3.35(1.35)
3	.60(.50)	.65(.49)	.70(.47)	.65(.49)	2.60(1.31)
4	.65(.49)	.80(.41)	.70(.47)	.75(.44)	2.90(1.25)
5	.75(.44)	.80(.41)	.75(.44)	.75(.44)	3.05(1.25)
6	1.00(.00)	.85(.37)	.90(.31)	.85(.37)	3.60(.75)
χ^2	10.13*	2.58	2.97	2.13	-

N : 100(each age : 20), df = 3, *p<.05
 each section maximum : 1 scale, total antipodal direct maximum : 4 scales

향 대립어의 선호는 ‘아래쪽’이 아닌 것, ‘위쪽’이 아닌 것, ‘왼쪽’이 아닌 것, ‘오른쪽’이 아닌 것, 모두 방향 부정 시 정반대 방향 대립어의 선호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높아진다.

연령에 따른 방향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정반대 방향 대립어의 선호는 ‘아래쪽’이 아닌 것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아래쪽’이 아닌 것을 ‘위쪽’으로 답하는 정반대 대립어 선호가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오른쪽’이나 ‘왼쪽’을 답하는 수직적 선호가 높아진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대립어 습득이 연령이 따라 차이가 있는지 차원이 있는 대립어의 부정어 처리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색 대립어, 방향 대립어 및 차원형용사 대립어 습득 과제와 색 부정어 및 방향 부정어 처리 과제를 실시 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립어 습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대립색의 경우는 5세에 ‘파란색 : 빨간색’을 서로 대립어로 여긴다. 이 경우 정의상, 의미상으로 대립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성인을 포함하여 5, 6세 아동은 보색관계인 ‘빨간색 : 파란색’을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검정색’과 ‘흰색’이 정반대의 대립어와 일치하는 3차원 공간상에 배열될 때, 유사한 위치적 자질을 보여주기 때문에(Berlin & Kay 1969; Lyons 1977) 대립어로 간주하여 ‘빨간색’과 ‘파란색’ 역시 공간상의 배열을 대립어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립색이 6세에 습득되는 것에 비해, 방향 대립어는 더 이른 나이인 3세 6개월에 이미 습득되었다. 즉, 방향 대립어의 습득비율 및 습득연령이 색 대립어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방향과 색의 지각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세 아동은 형태-명칭 연합보다 색-명칭 연합을 더

늦게 학습하며, 학습도중 범한 오류 수도 형태보다 색에서 더 많다(Bornstein 1985). 또한 2세 아동이 크기보다 색 이해에 더 어려움을 겪고, 크기보다는 색과 대상물을 연합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느낀다(Sandhofer & Smith 1999). 이는 2, 3세 아동의 형태 이해가 색 이해보다 더 빠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향 대립어의 습득이 색 대립어보다 더 빠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형태뿐만 아니라 방향도 색보다 지각이 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향어는 ‘위 : 아래’와 같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짝으로 이해되지만 색의 경우 색 대립어라는 것이 방향보다 확실하지 않다.

모든 방향 대립어가 3세에 이미 습득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3, 4세에 혼란을 보이다가 6세에 이르면 완성단계에 도달하고, 5세에도 ‘오른쪽 : 왼쪽’을 파악하지 못한 아동이 많으며, 5세 후에 습득된다는 임지룡(1989)의 연구와 차이가 난다. 이는 연구방법 상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는 ‘이 화살표는 오른쪽이지. 오른쪽의 반대쪽은?’과 같이 대립 쌍 중 하나를 알려 주고 다른 대립어를 물었고 임지룡(1989)의 연구에서는 대립 쌍이 있는 두 그림을 보여주고 ‘오른손은 어느 쪽이니?’와 같이 질문하였다. 또한 표현에서 3세에 ‘위’를 습득하고, 6세 후에 ‘아래’를 습득한다는 장은숙(2004)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밑’이라고 답한 것까지 ‘아래’에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차원형용사 대립어는 대부분 5세 후에 습득되는데, 습득 시기는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크기와 관련된 대립어 ‘크다 : 작다’는 3세 때 이미 습득되었고, 명암과 관련된 대립어 ‘밝다’는 5세 후, ‘어둡다’는 6세 후에 습득되며, 길이와 관련된 대립어 ‘길다’는 5세 후, ‘짧다’와 높이와 관련된 대립어 ‘높다’, ‘낮다’는 6세 후에 습득되고, 두께와 관련된 대립어 ‘두껍다’는 6세 후, ‘얇다’는 5세 후에 습득되며, 양과 관련된 대립어 ‘많다’는 5세 후에 습득되지만, ‘적다’는 6세 때도 습득되지 않았다. 따라서 3세에 ‘크다 : 작다’가 5세에 ‘밝다’, ‘길다’, ‘많다’, ‘얇다’가 6세에 ‘어둡다’, ‘높다’, ‘낮다’, ‘짧다’가 습득되고 ‘적다’는 6세가 되어서도 완전히 습득되지 않았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적다’가 6세에 습득되고 ‘높다 : 낮다’, ‘두껍다 : 얇다’가 6세에 습득되지 않는다는 표현측면으로 습득을 살펴본 장은숙(2004)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명암과 관련된 대립어 ‘밝다 : 어둡다’는 3, 4세에 색 대립인 ‘하얗다’, ‘검다’로 오류를 범하고, 길이와 관련된 대립어 ‘길다 : 짧다’, 높이와 관련된 대립어 ‘높다 : 낮다’, 두께와 관련된 대립어 ‘두껍다 : 얇다’, 양과 관련된 대립어 ‘많다’는 4, 5세에 ‘크다’, ‘작다’로 오류를 범하고 ‘적다’는 6세 아동조차도 ‘작다’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이는 4세 아동이 ‘크다’를 ‘높다’, ‘키 크다, 길다, 넓다, 두껍다’와 동의어로 취급하며, ‘작다’ 역시 일련의 소극적인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Clark(1973)의 연구를 지지한다. 특히,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적다’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차원형용사 대립어는 어휘상의 사용빈도에 따른 입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껍다 : 얇다’와 ‘높다 : 낮다’를 제외하고 ‘밝다’, ‘많다’, ‘길다’와 같은 적극적인 항목이 ‘어둡다’, ‘적다’, ‘많다’와 같은 소극적인 항목보다 더 빨리 습득되었다. 이는 개념상 더 좋아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Clark 1970) 아동이 적극적인 항목에 선호를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주영희 1984; Donaldson & Balfour 1968; Klatzky et al. 1973).

따라서 대립어의 습득 순서는 3세에 방향 대립어, 5세에 차원형용사 대립어, 6세에 색 대립어로 나타났는데, 반의적 대립어 습득이 3, 4세경에 혼란을 보이다가 6세경에 이르면 완성단계에 도달하고, 습득순서는 방향 대립어, 반의적 대립어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임지룡(198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대립어 범주구조가 색 용어에서보다 직접적이고 비교 가능한 용어, 즉 방향 및 차원형용사에서 확실히 더 잘 확립된다는 Morris(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대립어 선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잘 알려진 대립색이 없는 경우, ‘파란색’, ‘빨간색’의 부

정어 처리는 두 색을 대부분 보색관계로 처리하는데 이는 습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대립어, 즉 보색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인 것이다. 잘 알려진 색 대립어, ‘흰색’, ‘검정색’의 부정어 처리는 6세에 성인보다 높은 수준의 정반대 대립어 선호를 보인다. 이는 ‘흰색’, ‘검정색’의 색 대립어가 완전히 습득된 6세일 때 정반대 색 대립어의 선호가 가장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방향의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대립어를 선호하는 경향은 대립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이른 연령인 3세 6개월부터 나타났고, 이러한 선호는 방향이 색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4, 5세 아동이 화용적으로 색, 방향 모두에 강한 부정어를 하는 것으로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대립어를 선호한다는 Morris(2003)의 연구와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대립어의 차원, 색인지 방향인지에 따라 부정어 처리 시 정반대 대립어의 선호는 차이가 나고 이러한 선호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부정어를 처리할 때 내포적이고 약한 해석보다는 강한 해석을 좋아하는 것(Brewer & Lichtenstein 1975; Gross et al. 1989; Rychlak & Barnard 1996)처럼 어린 아동도 성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아동의 대립어 습득 시기는 대립어 차원에 따라 다르며 대립어 차원이 어린 아동의 부정어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방향 대립어와 같이 차원이 있는 대립어를 대상으로 발달과 부정어 처리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유형별 대립어의 발달이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대립어 습득 연령에 맞게 대립어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부산지역에 있는 두 곳의 어린이집의 아동 각 연령별 20명씩으로 제한되었고, 연구방법상 그림카드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다 : 가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 대립어가 제외되었으며, 부정어 처리과제 시 연구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차원형용사 대립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반의적 대립어의 차원을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수를

늘리고, 동사를 포함한 반의적 대립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성(similarity)’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의미론적 내용과 내포적 의미론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경안(1980) 한국아동의 언어발달연구: 음운발달 및 어휘발달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 조사. 태성 인쇄사.
- 이유미(1998) 아동의 단어의미습득에 관한 연구: 척도 대립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1989) 대립어의 의미습득에 대하여. 발달교육학회. 7, 153-179.
- 장은숙(2004) 3-6세 아동의 대립어 의미습득에 관한 연구 : 척도반의어와 방향대립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희(1984)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개문사.
- 탁미정(1994) 대립어를 통한 아동의 어휘력 향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tman S(1967) The structure of primate social communication. In S. A. Altman, (Ed.), Social Communication among Prim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52-362.
- Berlin B, Kay P(1969) Basic color term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rnstein MK(1985) Colour-name versus shape-name learning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387-393.
- Braine MDS, Rumain B(1983) Logical reasoning. In J. H. Flavell & E. M. Markma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II.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rewer WF, Lichtenstein EH(1975) Recall of logical and pragmatic implication in sentences with dichotomous and continuous antonyms. Memory & Cognition 3(3), 315-318.
- Clark HH(1970) The primitive nature of children's relational concepts, In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 by J. R. Hay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Clark EV(1972) On the child's acquisition of antonyms in two Semantic field.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
- Clark EV(1973). What's in a word? On the child's acquisition of semantics in his first language. In Dato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Dale PS, Fenson L(1996) Lexical development norms for young children. Behavioral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25-127.
- Donaldson M, Balfour G(1968). "Less is More: a study of language comprehension in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9, 461-472.
- Gross D, Fischer U, Miller GA(1989)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8, 92-106.
- Harrison B(1972) Meaning and Structure: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 Johnson-Laird ON(1983) Mental model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latzky RL, Clark EV, Macken M(1973). Asymmetries in the acquisition of polar adjectives: Linguistic or conceptua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 32-46.
- Leevers HJ, Harris PL(2000) Counterfactual syllogistic reasoning in normal 4-year-olds,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6, 64-87.
- Lyons J(1977) Semantics Vol. I.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 BJ(2003) Opposites attract: the role of predicate dimensionality in preschool children's processing of negations. Child Lang. 30. 419-440.
- Rychlak JP, Barnard S(1996) Reasoning about apparent contradictions : resolution strategies and positive-negative asymmetries. Journal of Child Language 26, 477-490.
- Sandhofer CM, Smith LB(1999) Learning color words involves learning a system of mapp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68-679.
- Sharpe D, Cote M, Eakin L(1999) Reasoning about a structured object: three- and four-year-olds' grasp of a borderline case and an unexcluded middle. Child Development 70(4), 866-671.
- Sharpe D, Eakin L, Saragovi C, Macnamara J(1996) Resolving apparent contradictions: Adults' and preschoolers' ability to cope with non-classical nega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675-691.
- Sharpe D, Purdy D, Christie E(1997) Acquiring the logical of natural language negation: structured objects of the Twenty-first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Somerville, MA: Cascadilla Press.
- Wilden A(1972) Structure and Function: Essays in Communication and Exchange. London: Tavistock.